이슈브리핑 Issue Briefing
20110418 vol.36

2011년 1/4분기
전라북도 관광객 실태조사 결과

연구진 정 명 희 연구위원 mhjyung@jd.re.krr
연구진 양 지 인 연구원 sunshine@jd.re.kr

Chapter 1 | 전라북도 관광객 실태조사 개요
Chapter 2 | 주요 조사결과
Chapter 3 | 종합분석 및 시사점

전북발전연구원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이슈브리핑 Issue Briefing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2011년 4월 18일 vol.36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 발행인 : 원도연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57(중앙동 4가 1) TEL : 063)280-7100 FAX : 063)286-9206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CONTENTS

2011년 1/4분기

전라북도 관광객 실태조사 결과

Chapter 1 전라북도 관광객 실태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및 내용 3
2. 조사대상지 선정 및 조사방법 4
3. 응답자 일반적 사항 5

Chapter 2 주요 조사결과
1. 전라북도 여행결정과정 6
2. 관광객 방문행태 9
3. 관광객 소비실태 12
4. 관광객 만족도 14

Chapter 3 종합분석 및 시사점
1.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목적형 관광시장 창출 17
2. 수도권 관광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마케팅 전략 필요 17
3. 관광정보제공 및 홍보전략의 다양화 필요 18
4. 관광객 소비환경 개선 18

Chapter 1

전라북도 관광객 실태조사 개요

본 자료는 2011년 1/4분기 전라북도 관광객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전라북도 관광객 실태조사는 전라북도 방문 관광객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추이를 분석하여 전라북도 관광정책 수립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생성을 목적으로 2011년 처음으로 실시되는 조사입니다.
본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는 1/4분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절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어 사계절을 통합한 데이터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조사목적 및 내용

- 전라북도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관광실태 및 동향을 파악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광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조사내용은 크게 여행결정과정, 관광객 방문행태, 관광객 소비실태, 관광지에 대한 만족도, 응답자 일반적 사항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세부 조사설계는 〈그림 1〉과 같음

Key Questions	Research Design	Contents
여행결정: 여행목적/선택이유/거주지역/방문경험/여행정보출처	조사대상	• 전라북도 14개 시·군 지정관광지 방문객
방문행태: 동반유형 및 인원/교통수단/숙박일수 및 장소/숙박시설	표본크기	• 총 2,000명(유효표본 1,505부)
관광소비실태: 여행형태 및 여행경비/지출하지 못한 항목/지출방해요인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관광만족도: 불편사항/관광지 만족도/재방문의사 및 추천의사/보완사항	조사기간	• 2011. 2. 21~28(8일간)
	조사지역	• 전라북도 14개 시·군 지정관광지 38개소
	표본구성	• 성별, 연령별 임의 할당 조사

〈그림 1〉 조사설계 및 조사내용

2. 조사대상지 선정 및 조사방법

- 조사대상지는 전국 주요 관광지 방문객수를 월별로 집계하여 제공하는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의 「관광지 방문객 보고통계」를 기준으로 선정함
- 2010년 관광객 수를 기준으로 14개 시·군별로 각각 상위 2곳씩 총 28개 관광지와 이를 제외한 전라북도 관광객 수 상위 10곳의 관광지를 추가하여 총 38개 관광지를 선정함
- 설문조사는 2011년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총 8일간 진행되었으며, 훈련된 조사원이 만 15세 이상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자기기입식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 배부된 설문지 총 2,000부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495부를 제외한 1,505부를 분석에 활용하였음

〈표 1〉 조사대상지별 표본크기 할당

(단위: 명, %)

시군	관광지	유효표본수	비율	시군	관광지	유효표본수	비율
전주	경기전	97	6.4	완주	모악산도립공원(완주군)	102	6.8
	덕진공원	29	1.9		대둔산도립공원(완주군)	48	3.2
	국립전주박물관	49	3.3	무주	덕유산국립공원(무주군)	3	0.2
군산	금강호관광지	95	6.3		무주리조트	110	7.3
	은파유원지	67	4.5		장안산군립공원	4	0.3
익산	미륵사지	68	4.5	장수	와룡자연휴양림	4	0.3
	금마관광지(서동공원)	43	2.9		방화동 휴가촌	48	3.2
	왕궁보석테마관광지	45	3.0	임실	옥정호	6	0.4
	익산웅포지구관광지	39	2.6		필봉전수관	23	1.5
정읍	내장산 국립공원	33	2.2		임실치즈마을	30	2.0
	동학농민혁명기념관	30	2.0	순창	강천산 군립공원	37	2.5
남원	남원관광지	45	3.0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20	1.3
	광한루원	25	1.7	고창	선운산 도립공원	45	3.0
	지리산국립공원(남원시)	5	0.3		고창고인돌유적	2	.1
김제	모악산도립공원	72	4.8		고창읍성	3	.2
	아리랑문학관	14	0.9	부안	새만금전시관	38	2.5
	심포횟집단지	50	3.3		내소사	29	1.9
	벽골제수리민속유물전시관	50	3.3		채석강(대명리조트)	47	3.1
진안	마이산 도립공원	24	1.6	계	–	1,505	100.0
	진안홍삼스파	26	1.7				

* 조사기간에 구제역, 일부 국립공원 입산통제, 휴장, 강우 등으로 관광객이 급감하여 조사가 어려운 관광지는 해당 시·군청에서 추천하는 타관광지로 변경
(전주 동물원 → 덕진공원, 김제 모악랜드→아리랑문학관, 국립임실호국원→필봉전주관, 임실 사선대 관광자→임실치즈마을, 논개생가지→와룡자연휴양림, 정읍 산외한우마을→내장산 국립공원, 진안 용담댐→ 진안홍삼스파 등으로 변경)

3. 응답자 일반적 사항

- 응답자는 '남성(56.9%)'이 '여성(43.1%)'보다, '기혼(62.3%)'이 '미혼(37.7%)'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30대(25.9%)'와 '20대(25.3%)'가 높게 나타났으며 '40대(22.5%)' 등의 순으로 20대-40대의 관광객이 약 74%를 차지함
- 직업별로 살펴보면 '학생(23.6%)'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자영업(14.3%)'과 '사무/기술직(13.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 응답자 일반적 사항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비율
성별	남자	856	56.9
	여자	649	43.1
연령	10대	85	5.7
	20대	379	25.3
	30대	388	25.9
	40대	337	22.5
	50대	205	13.7
	60대 이상	104	6.9
결혼	기혼	934	62.3
	미혼	565	37.7
직업	농림어업	67	4.5
	생산직	58	3.9
	자영업	215	14.3
	서비스/판매직	102	6.8
	사무/기술직	208	13.8
	경영/관리직	68	4.5
	전문기술/관리직	103	6.9
	주부	187	12.5
	학생	354	23.6
	무직	58	3.9
	기타	82	5.5
학력	무학	11	0.7
	중졸이하	114	7.6
	고졸이하	414	27.6
	대학이상	962	64.1
표본합계		1,505	100.0

주) 각 항목별 무응답자 제외

Chapter 2

주요 조사결과

1. 전라북도 여행결정 과정

1) 여행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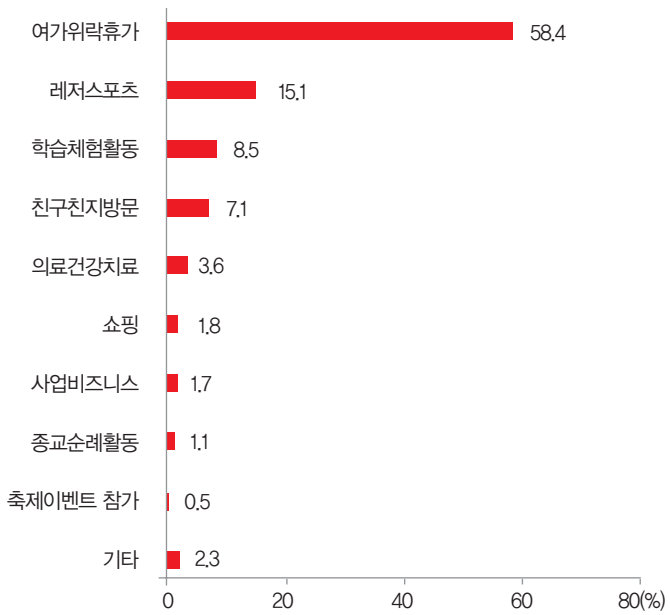
- 전라북도 관광지 방문목적은 '여가/위락/휴가(58.4%)' 목적이 가장 많았고, '레저/스포츠(15.1%)', '학습/체험활동(8.5%)', '친구/친지 방문(7.1%)' 순으로 나타남

- 최근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의료(건강/치료), 쇼핑, 비즈니스 목적의 관광은 모두 1~3% 내외로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3〉 여행 목적

(단위: 명, %)

구분	빈도	구성비
여가/위락/휴가	879	58.4
레저/스포츠	227	15.1
학습/체험활동	128	8.5
친구/친지방문	107	7.1
의료/건강/치료	54	3.6
쇼핑	27	1.8
사업/비즈니스	25	1.7
종교/순례 활동	16	1.1
축제/이벤트 참가	7	0.5
기타	35	2.3
합계	1,505	100



2) 전라북도 관광지 선택이유 및 거주지역

- 관광객들이 전라북도 관광지(조사지점)를 선택한 이유로는 '거리가 가까워서(30.5%)', '유명한 관광지여서(21.8%)', '주변인의 추천으로(19.1%)' 순으로 나타남
- 그러나 '볼거리/즐길거리가 풍부해서(9.0%)' 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관광지의 매력성 및 관광객 유인력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표4〉 방문관광지 선택이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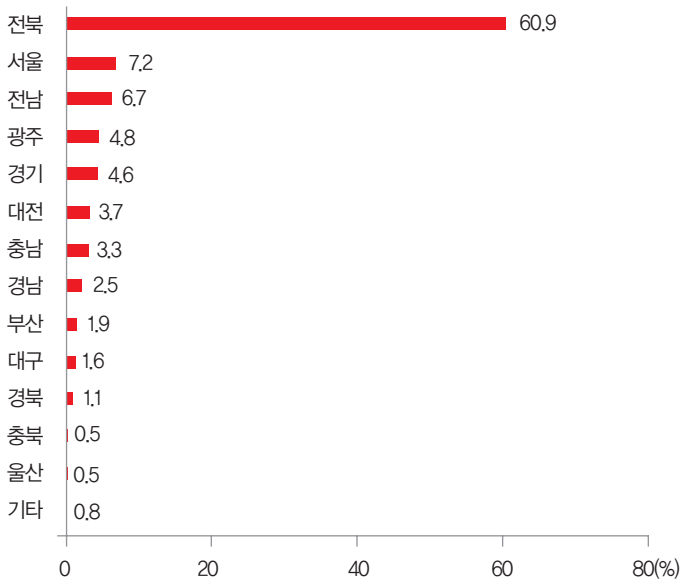
구분	빈도	구성비
거리가 가까워서	458	30.5
유명한 관광지여서	328	21.8
주변인의 추천으로	287	19.1
볼 · 즐길거리가 풍부해서	135	9.0
교통 · 접근성 등이 편리해서	92	6.1
유명한 먹거리를 찾아서	57	3.8
여행사 패키지에 포함	28	1.9
기타	119	7.9
합계	1,505	100.0

- 전체 관광객 중 도내 지역주민이 60.9%를 차지하고 있어 전라북도 관광시장이 역내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서울 · 경기 11.8%, 광주 · 전남 11.5%, 대전 · 충남 7.0%순으로 나타남

〈표 5〉 관광객 거주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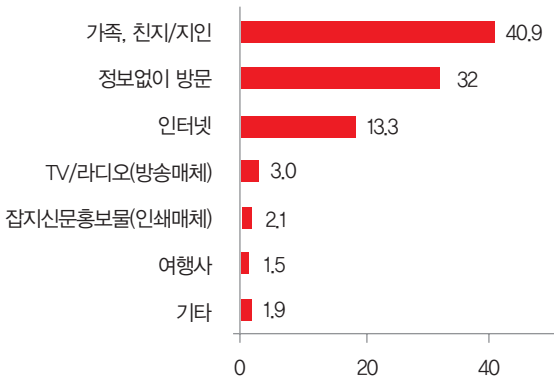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빈도	구성비
전북	917	60.9
서울	109	7.2
전남	101	6.7
광주	72	4.8
경기	69	4.6
대전	55	3.7
충남	49	3.3
경남	38	2.5
부산	28	1.9
대구	24	1.6
경북	16	1.1
울산	8	0.5
충북	8	0.5
기타	6	0.8
합계	1,50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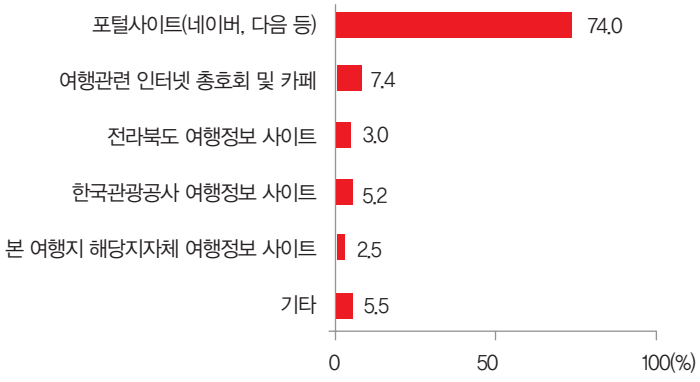


3) 여행관련 정보획득 경로

- 전라북도 관련 여행정보 획득경로는 '가족 및 친지/지인(40.9%)' 이 가장 많았으나, '정보없이 방문(32.0%)' 한 관광객 비율도 매우 높게 나타남
- '인터넷(18.8%)' 을 통해 여행정보를 제공받은 관광객들은 주로 '네이버', '다음' 과 등 포털 사이트(74.0%)를 활용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여행관련 동호회 및 카페(7.4%)', '전라북도 여행정보 사이트(5.5%)' 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여행정보경로



〈그림 3〉 인터넷사이트 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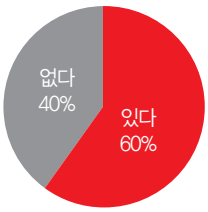
4) 관광지 이전 방문경험

- 관광객 중 재방문 관광객 60.2%, 처음 방문한 관광객 39.8%로 관광객의 재방문율이 높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역내 관광객이 많다는 측면에서 보면 신규관광시장 창출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표 6〉 관광지 이전 방문경험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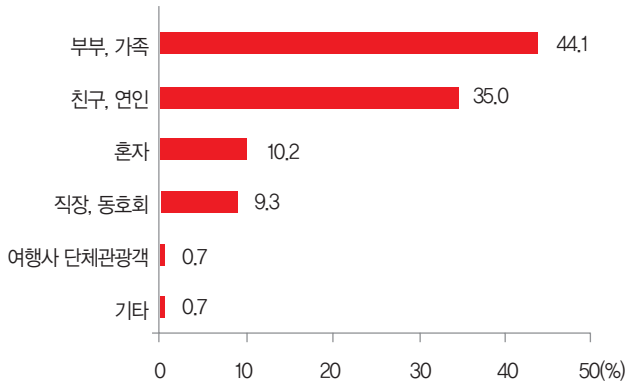
구분	빈도	구성비
있다	906	60.2
없다	599	39.8
합계	1,50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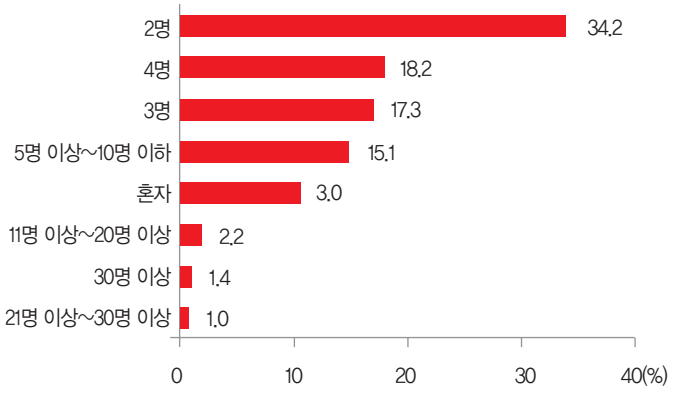
2. 관광객 방문행태

1) 관광객 동반유형 및 동반인원

- 관광객의 동반유형은 '부부 · 가족(44.1%)', '친구 · 연인(35.0%)'이 약 80.0%를 차지하였고 '혼자(10.2%)', '직장 · 동호회(9.3%)' 순으로 나타남
  - 혼자 관광지를 방문한 경우는 대부분 근린 생활권에서 방문한 사람으로 타 지역에 비해 생활권 관광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동반인원은 본인을 포함하여 '2명(34.2%)'이 가장 많았고 '4명(18.2%)', '3명(17.3%)' 순으로, 3명 이내 소규모 관광객이 주를 이루고 있음



〈그림 4〉 동반유형



〈그림 5〉 동반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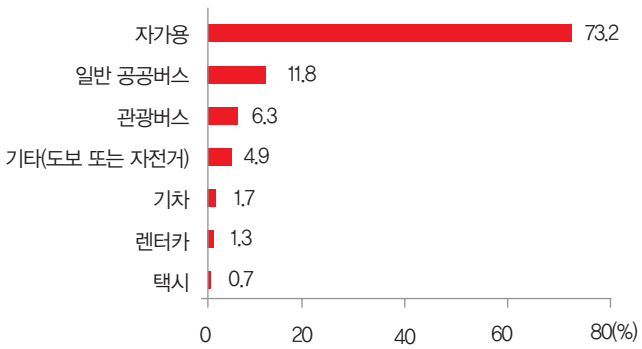
2) 이용 교통수단

- 관광객이 이용한 교통수단은 '자가용(73.2%)'이 가장 많았고 '일반 공공버스(11.8%)', '관광버스(6.3%)', '도보/자전거(4.9%)' 순으로 나타남
- 자가용을 활용한 관광객의 비율이 높을수록 주요 도로변 교통안내시설 및 주차장 등 관광교통 인프라에 대한 관광수용태세 확충이 요구됨
- 최근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철도를 활용한 관광행태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남

〈표 7〉 이용 교통수단

(단위: 명, %)

구분	빈도	구성비
자가용	1095	73.2
일반 공공버스	177	11.8
관광버스	94	6.3
기타(도보 또는 자전거)	73	4.9
주) 무응답자 제외기차	25	1.7
렌터카	20	1.3
택시	11	0.7
합계	1,49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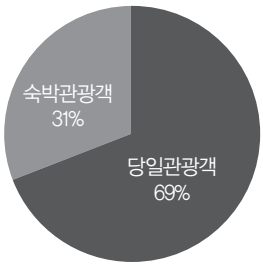
3) 방문기간(당일관광 vs 숙박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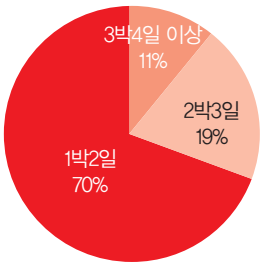
- 당일관광객(69.5%)은 숙박관광객(30.5%)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았고, 숙박관광객도 1박 2일 관광객이 21.4%를 차지해 단기체류 관광객이 대부분을 차지함
  - 2박3일 이상 중장기 체류관광객은 10% 미만으로 나타남
- 관광객 방문기간은 관광객의 소비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의 방문기간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8〉 방문기간

(단위: 명, %)

구분		빈도	구성비
당일		1,046	69.5
숙박	1박2일	322	21.4
	2박3일	89	5.9
	3박4일 이상	50	3.3
	숙박합계	459	30.5
합계		1,505	100.0





4) 숙박장소 및 이용 숙박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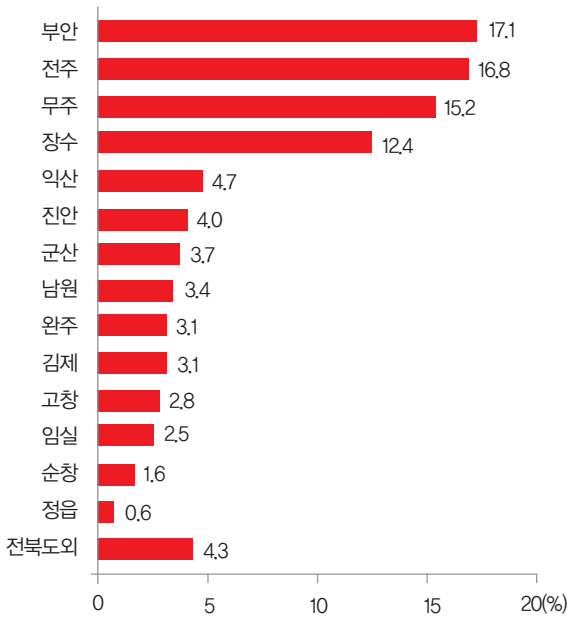
- 숙박관광객의 숙박장소는 방문기간 및 숙박시설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조사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조사에서 관광객들이 숙박장소로 많이 선택한 곳은 '부안군(17.1%)', '전주시(16.8%)', '무주군(15.2%)' 순으로 나타남
- 높은 비율을 차지한 부안군, 무주군, 장수군은 숙박시설이 조사 관광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전주시는 타 시·군에 비해 접근성이 우수하고 다양한 관광자원과 야간 즐길거리가 있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음

〈표 9〉 숙박 장소

(단위: 명, %)

구분	빈도	구성비
부안	55	17.1
전주	54	16.8
무주	49	15.2
장수	40	12.4
익산	15	4.7
진안	13	4.0
군산	12	3.7
남원	11	3.4
김제	10	3.1
완주	10	3.1
고창	9	2.8
임실	8	2.5
순창	5	1.6
정읍	2	0.6
전북도외		4.3
결측값	15	4.7
합계	322	100.0

주) 숙박장소는 1박2일 숙박객(전체 숙박객의 70.2% 차지)을 기준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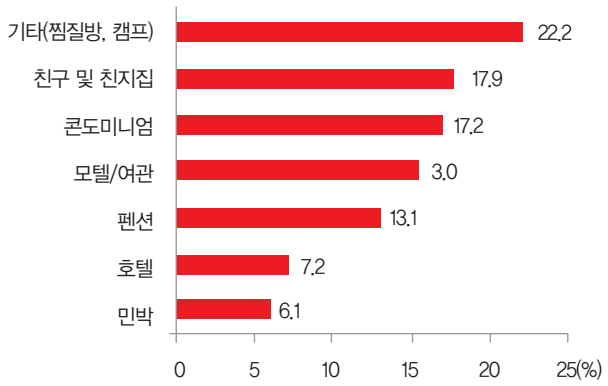


- 이용숙박시설은 '민박(6.1%)', '호텔(7.2%)' 등의 이용이 낮게 나타난 반면 '찜질방·야영장(22.4%)'이 높게 나타남
- 이는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찜질방과 가족단위의 캠핑객들이 방문하는 야영장이 새로운 숙박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10〉 이용숙박시설

(단위: 명, %)

구분	빈도	구성비
기타(찜질방, 야영장)	102	22.4
친구 및 친지집	82	18.0
콘도미니엄	79	17.4
모텔/여관	71	15.6
펜션	60	13.2
호텔	33	7.2
민박	28	6.1
합계	459	100.0



3. 관광객 소비실태

1) 여행형태별 여행경비

- 관광객의 여행형태는 '개별여행(89.2%)', '동호회 · 단체(9.6%)', '여행사 패키지(1.2%)' 순으로 대부분이 개별 여행형태로 나타남
  - 단체여행객은 대부분 봄꽃축제기간 또는 가을 단풍철 기간에 집중되기 때문에 조사 시기(12월-2월)에 따른 특성인 것으로 보임
- 여행행태별 여행경비는 패키지 여행이 194,117원, 단체여행 103,627원, 개별여행 97,237원으로 나타나 패키지여행의 경비지출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당일여행객의 평균 지출금액은 57,547원, 숙박여행객은 187,023원으로 전국평균('09년 당일관광 55,038원, 숙박관광 155,234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숙박비 및 교통비 등 물가상승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소비지출액이 높다고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표 11〉 여행형태 및 유형별 여행경비

(단위: 원, %)

구분	빈도(구성비)			평균비용		
	당일여행	숙박여행	전체	당일여행	숙박여행	전체
동호회 · 단체	69(7.2)	66(14.5)	135(9.6)	39,855	170,299	103,627
여행사 패키지	6(0.6)	11(2.4)	17(1.2)	93,500	249,000	194,117
개별	881(92.2)	379(83.1)	1,260(89.2)	58,557	187,150	97,237
합계	956(100.0)	456(100.0)	1,412(100.0)	57,547	187,023	99,295

주) 지출비용 없음과 무응답 제외

〈참고〉 국민여행실태조사에 의한 국내 국민여행 평균 지출비용

- 국내 국민여행 1인 평균 지출비용은 '08년 당일관광객이 42,134원, 숙박관광객 139,963원이었으며, '09년에는 당일관광객 55,038원 숙박관광객 155,234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표 12〉 국민여행실태조사 여행경비

(단위: 원, %)

구분	2008년			2009년		
	당일관광	숙박관광	계	당일관광	숙박관광	계
1인 평균 지출금액	48,352	115,981	164,333	55,038	155,234	210,272

2) 지출 방해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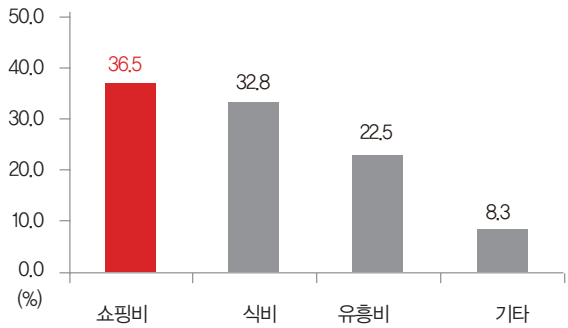
- 관광객은 더 지출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하지 못한 항목으로 '쇼핑비(36.5%)', '식비(32.8%)', '유흥비(22.5%)'를 지적하였음

〈표 13〉 더 지출하지 못한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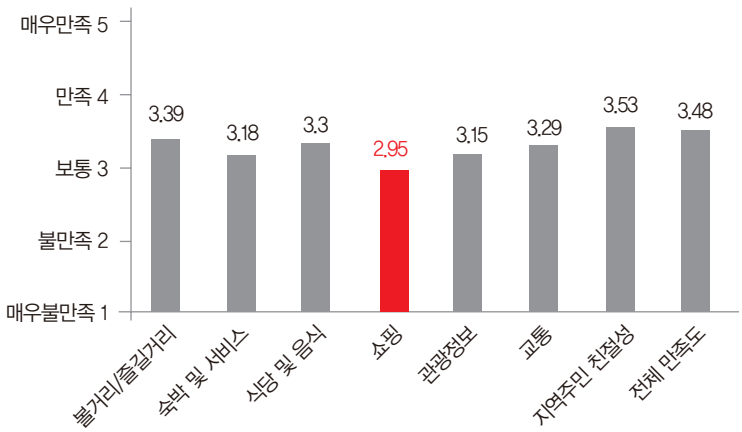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빈도	구성비
쇼핑비	229	36.5
식비	206	32.8
유흥비	141	22.5
기타	52	8.3
합계	628	100.0

주) 무응답 제외



- 또한 '지출할 품목 부재(34.8%)', '높은 가격(24.4%)', '소비활동 관련 정보부족(17.6%)' 등이 관광객의 소비지출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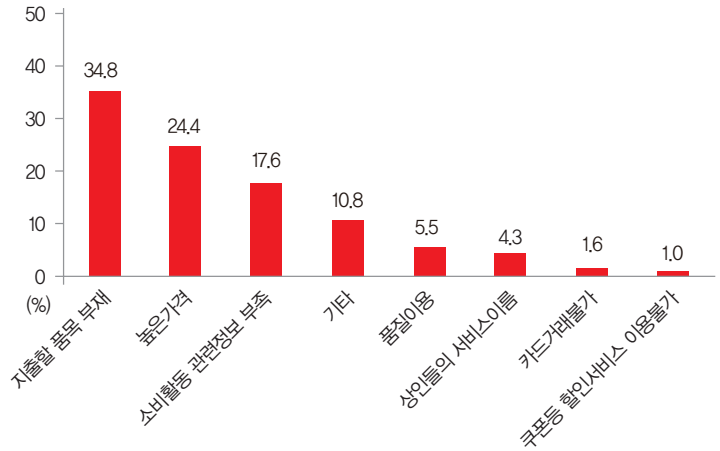
〈그림 7〉 관광객 만족도

- 따라서 관광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관광객을 위한 쇼핑공간의 확대와 충분한 정보제공, 쇼핑품목에 대한 품질관리 쇼핑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관광객 만족도

1) 전반적 관광만족도

- 전라북도 방문 관광지에 대한 전체 만족도는 5점 척도 중 3.48점으로 평균 정도로 나타났으며, 지역주민의 친절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관광객 소비와 관계되어 있는 쇼핑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가치 창출 뿐만 아니라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쇼핑환경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그림 6〉 지출방해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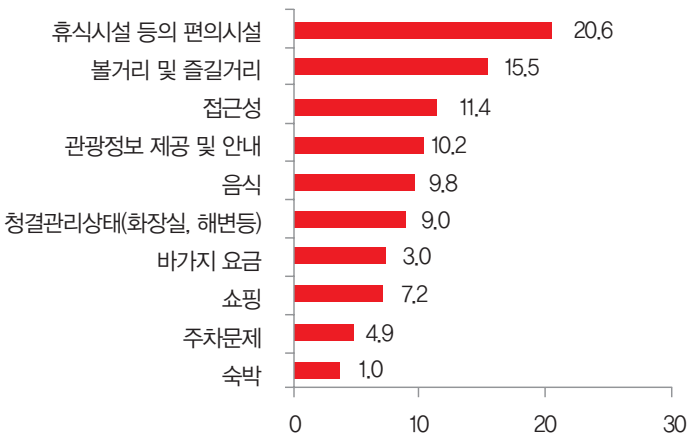
2) 전라북도 관광에서 불편한 사항

- 관광객들은 관광 불편사항으로 '휴식시설 등의 편의시설 부족(20.6%)', '볼거리 및 즐길거리 부족(15.5%)', '접근성(11.4%)' 등을 지적하였음
- 관광객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확충, 볼/즐길거리를 위한 관광콘텐츠 개발이 우선적인 과제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표 14〉 관광객 불편사항

(단위: 명, %)

순위	구분	구성비
1순위	휴식시설 등의 편의시설	20.6
2순위	볼거리 및 즐길거리	15.5
3순위	접근성의 어려움(교통, 도로혼잡)	11.4
4순위	관광정보제공 및 안내	10.2
5순위	음식	9.8
6순위	청결관리상태(화장실, 해변등)	9.0
7순위	바가지요금	7.5
8순위	쇼핑	7.2
9순위	주차문제	4.9
10순위	숙박	3.9
	합 계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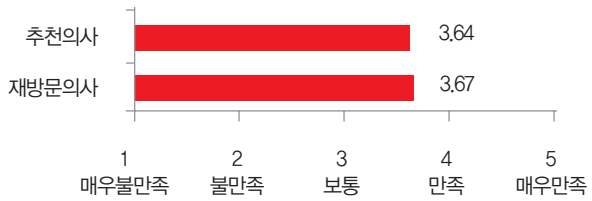
3) 재방문의사 및 추천의사

- 관광객의 관광지 재방문 의사와 추천의사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지표중 하나로, 본 조사에서는 3.67점, 3.64 점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남

〈표 15〉재방문 의사 및 관광지 추천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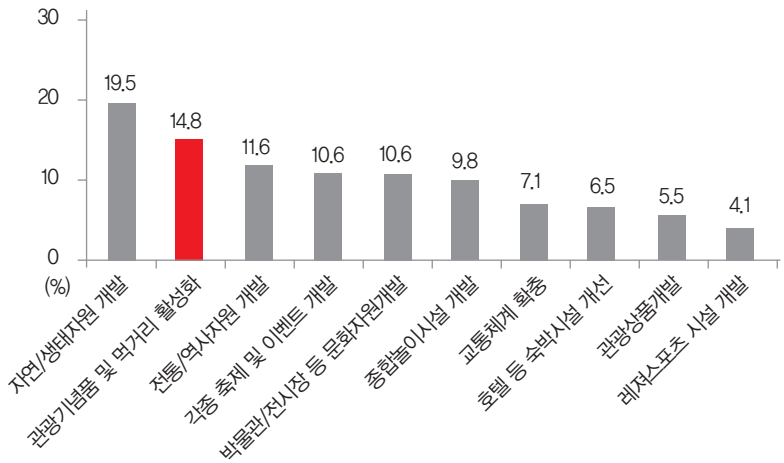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재방문의사	1501	3.67	.826
추천의사	1500	3.64	.808



4) 개선사항

- 전라북도 관광발전을 위해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관광객들은 '자연 · 생태관광자원 개발(19.5%)', '관광기념품 및 먹거리 활성화(14.8%)', '전통 · 역사자원의 개발(11.6%)' 순으로 응답하였음
- 자연 · 생태관광자원 등 볼거리/즐길거리 개발과 관광기념품 및 먹거리 활성화 등 "소비활동"과 관련된 개선사항을 지적함에 따라 전라북도 관광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그림 8〉 전라북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보완사항

Chapter 3

종합분석 및 시사점

1.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목적형 관광시장 창출

- 이번 조사에서 전라북도 관광객들의 방문목적이 "여가 및 휴가"라는 광역적 부분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MICE 관광, 의료관광, 쇼핑관광 관광객은 극소수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특수목적형 관광(SIT, Special Interest Travel)은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전북도가 목적형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음

- 관광객중 도내 지역주민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관광지 선택이유로 '거리가 가까워서' 라고 응답한 관광객이 가장 많다 것을 감안할 때 전라북도 관광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규시장 창출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① MICE 산업 집중 육성 ② 의료관광 본격화 ③ 쇼핑관광 활성화 ④ 산업관광 육성 ⑤ 창조형 관광콘텐츠 확충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음

- 전북도에서도 이러한 관광트랜드를 반영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개발을 통하여 관광시장에서 보다 명확한 타겟을 설정함으로써 신규관광시장 개척이 필요함

2. 수도권 관광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마케팅 전략 필요

- 본 조사에서 전라북도를 방문한 관광수요의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전북(60.9%), 광주 · 전남(11.5%), 대전 · 충남(7.0%) 등 79.4%가 인접지역으로 나타남
- 근거리 관광객은 소비규모가 적고 단일목적지형 관광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어 관광수요를 바탕으로 新관광시장 창출 및 수용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전라북도 관광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내 관광시장에서 절대적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관광시장에 대한 목적형 관광상품 개발 및 적극적인 관광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 관광정보제공 및 홍보전략의 다양화 필요

- 본 조사에서는 관광객들이 주로 과거 방문경험이나 친척 · 친구 등 주변의 지인을 통해서 여행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혀 정보를 탐색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관광객의 60%이상이 도내 지역주민임을 감안하면, 관광객들이 "잘 아는" 지역이어서 사전 정보탐색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따라서 관광지 현장에서 제공하는 관광정보가 관광객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관광지에서 어떠한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홍보 전략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관광안내정보 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산물과 관광기념품 판매 등 관광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도 고민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관광객 소비환경 개선

-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관광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임

- 따라서 세부 정책과제 역시 관광객 수의 양적증가가 아니라 관광객의 소비가 관광사업체와 지역사회의 수입으로 순환되고, 관광매력물 창출에 재투자를 통해 관광객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어야 함

- 이번 조사에서 관광객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쇼핑환경에 대한 관광객 만족도가 특히 낮다는 것은 각 기초자치단체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지방자치단체가 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측면에서 관광객이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 쇼핑공간 및 소비아이템 개발을 통해 관광객의 만족도 제고 및 관광산업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소득창출에 정책적 집중이 필요함

- 특히, 정책적으로 관광객들의 쇼핑활동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관광객들은 숙박, 음식 등의 기본적인 관광소비 외에 새로운 관광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더 지출할 의사가 있기 때문임

jthink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전북발전연구원
560-01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57(중앙동 4가 1번지)
Tel. 063-280-7100 Fax. 063-286-9206
www.jthink.kr